

학대 · 방임, 정서문제와 휴대전화의존 간의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종단연구

신경미* · 황순택**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학대·방임 경험과 정서문제, 그리고 휴대전화의존간의 상보적 인과관계를 종단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대와 방임의 특성이 다름으로 학대와 방임을 세분화하였고, 정서문제로는 우울·위축과 공격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orea Chil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중학교 1학년 패널 2차(2011), 3차(2012), 4차(2013)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여학생 1128명(49.5%), 남학생 1152명(50.5%), 총 2280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학대·방임, 청소년의 우울·위축과 공격성, 그리고 휴대전화의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시점에 걸쳐 학대·방임, 정서문제, 휴대전화의존을 측정한 결과 이전 시점의 학대·방임, 정서문제, 휴대전화의존이 이후 시점의 학대·방임, 정서문제,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학대와 방임은 자녀의 정서적 문제에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는 공격성에, 방임은 우울·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우울·위축, 공격성은 휴대전화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모의 학대·방임은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과 정서문제 그리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개입방안을 논의했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방임 · 학대, 우울 · 위축, 공격성, 휴대전화의존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1저자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교신저자, hstpsy@chungbuk.ac.kr

I. 서 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산업의 발달로 인해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 기기 사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 사용의 습관적인 과다사용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의 휴대전화 이용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만 3세 이상의 인구의 95.4%가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만3~9세의 유아동의 52.0%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나이가 올라갈수록 이용시간과 횟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유·아동 자녀의 부모 중 50.1%가 휴대전화 사용으로 갈등을 경험(한국정보화진흥원, 2014)할 정도로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전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휴대전화의 이용율과 중독율에서 10대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 청소년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교육부(2013) 조사 결과 초등학교의 50%,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80%~90%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및 휴대전화 이용과 중독에 관한 조사에서 2014년 우리나라 10~19세 청소년 중 휴대전화 중독위험군은 29.2%(1,562천명)로 전년(25.5%)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중독군의 약 2.6배에 이르는 수치이며, 청소년 휴대전화 중독에 대한 조사를 개시(2011년) 후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미래창조과학부, 2015).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율이 많은 만큼 과다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업 중에 휴대폰을 사용해 본 청소년이 68%를 넘고(윤선자, 2004), 엄지손가락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며, 외워야 할 것을 기기에 의존하면서 기억력과 암기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이연미, 이선정, 신호식, 2009). 이처럼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이 늘고 그에 따른 부작용과 다양한 청소년문제가 나타나면서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발달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모의 양육 및 부모자녀관계, 또래 및 친구관계, 학교생활적응 및 학습문제, 그리고 정서문제와 행동문제 등의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김선아, 2015; 김소영, 홍세희, 2014; 김지혜, 2012; 박은혁, 이웅택, 2015; 백승희, 전현정, 정혜원, 2014; 우수정, 2013; 유현주, 2014; 이어리, 이강이, 2012; 이연미 외, 2009; 이정숙, 명신영, 2007; 이종석, 정득, 김인설, 황현석, 2014; 이형진, 황동진, 2016;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조윤주, 2013; 차미숙, 2006).

청소년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 중 휴대전화의존을 낮추는 요인은 부모의 지도감독, 의사소통, 수용적이고 민주적 양육태도 등을 들 수 있다(김영민, 임영식, 2012; 유평수, 2010). 반면 휴대전화의존을 높이는 요인으로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 학대와 방임 및 문제중심적 의사소통을 들 수 있다(이어리, 이강이, 2013). 강필승(2014)은 부모로부터 학대 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자녀는 휴대전화 중독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보고하였다. 권재환과 이은희(2005), 조민자(2012)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방임적 태도는 자녀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과 같은 매체에 의존성을 높이거나 중독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자녀의 휴대전화 의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차미숙(2006)은 부모의 과잉기대적 양육태도와 학대, 방임이 휴대전화 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매개로 하여 휴대전화 의존과 중독의 위험성을 가중시킨다고 보고하였고, 우수정(2013)은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휴대전화 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모의 학대와 방임은 아동·청소년 자녀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된다. 손석한 외(2001)의 연구에서 부모의 학대와 방임은 우울, 불안, 위축, 신체화와 같은 내재화문제(internalizing problem)뿐만 아니라 공격성이나 비행 등의 외현화문제(externalizing problem)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철, 이정숙과 성경주(2012)의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정도가 심하고 학대 빈도가 잦아질수록 자녀의 우울증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춘숙(2006)의 연구에서도 학대 지각이 높을수록 자녀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에서 학대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으로 우울과 공격성을 꼽고 있다(장화정, 2004; 전해숙, 2008). 학대는 우울이나 공격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축, 신체화 증상, 주의집중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고(김나연, 2013), 방임 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박나래, 정익중, 2012; 유정아, 정익중, 2014). Debbie와 Craig(1984)은 신체적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 방임 경험이 있는 아동, 학대 방임 경험이 없는 아동으로 나누어 인지 및 행동 기능에 대해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학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방임 경험이 있는 아이들 보다 또래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더 높았고, 방임 경험이 있

는 아이들은 또래와 상호작용, 또래와의 애정적인 행동을 덜 보였으며, 학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방임경험이 있는 아이들 보다 공격성을 더 많이 보였다.

휴대전화 과다사용과 정서 관련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강필승(2014)은 우울, 공격성, 신체화증상이 휴대전화 의존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양심영과 박영선(2005)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우울한 성향과 충동성을 꼽았다. 이 밖에도 휴대전화 중독이나 의존은 우울과 높은 상관을 보이며(양심영, 2002),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한 경향이 있고(송은주, 2006; Ha, Chin, Park, Ryn & Yu, 2008), 우울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휴대전화와 같은 매체에 집착하고 몰입하면서 중독으로 이어진다(구현영, 2012; Young & Rogers, 1998)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된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 전상민(2014)은 휴대전화 의존이나 중독적 사용으로 우울해 지는 것이지 우울하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의존하거나 중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우울과 더불어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도 휴대전화 의존이나 중독을 심화시키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박지영, 김귀애, 홍창희, 2012). 위축은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과 접했을 때 긴장하거나 움츠러드는 반응을 보이고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Rubin, Coplan & Bowker, 2009)을 말한다. Kurdek과 Krile(1982)은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가 없는 청소년의 외로움 현상을 사회적 위축으로 설명하는데, 박영진과 장성화(2009)의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껴 외로움이 크게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휴대전화 중독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자가 사회적으로 위축될수록 중독에 더 빠지게 된다는 보고가 있다(이영주, 박주현, 2014). 위축은 청소년 휴대전화 의존을 야기하는 원인변인이 되기도 하고(양심영, 박선영, 2005), 결과변인이 되기도 한다(신호경, 이민석, 김홍국, 2011).

공격성 또한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을 높이는 정서 변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강필승, 2014). 다른 연구에서도 휴대전화 의존과 공격성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보연, 2012; Yang, Yen, Ko, Cheng & Yen, 2010), 공격성을 휴대전화 의존의 결과 변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김소영 외, 2014). 김숙(2014)의 연구에서 휴대전화를 과다 사용할 경우 주의집중이 저하와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보연(2012)의 연구에서도 휴대전화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자녀의 정서문제는 부모의 학대·방임의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이며, 휴대전화 의존·중독 같은 문제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휴대전화 의존, 정서문제를 함께 다룬 연구(강필승, 2014; 김숙, 2014; 김진숙, 문현주, 황승일, 2014; 유현주, 2014; 이어리, 이강이, 2013; 이형진, 황동진, 2016)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어리와 이강이(2013)의 연구에서 거부적 양육태도와 우울은 휴대전화 의존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숙(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소통이 많을수록 휴대전화 의존이 증가하지만 정서문제는 낮아지는 것으로, 김진숙 외(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태도는 휴대전화 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현주(2014)의 연구에서 우울과 사회적 위축, 공격성, 주의집중은 휴대전화 의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학대는 휴대전화 의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울과 공격성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형진과 황동진(2016)은 부모의 학대와 방임은 휴대전화의 중독을 매개로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모의 학대와 방임, 청소년의 정서문제, 그리고 휴대전화 의존 간에는 인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부모의 학대나 방임이 청소년 휴대전화의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강필승, 2014; 권재환, 이은희, 2005)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다(우수정, 2013; 유현주, 2014; 차미숙, 2006). 이처럼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는다. 우울, 위축, 공격성과 같은 정서문제가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에 대해서 우울, 위축, 공격성이 휴대전화의존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보고(구현영, 2012; 박영진, 장성화, 2009; 송은주, 2006; 양심영, 박영선, 2005)와 휴대전화의존으로 인해 우울, 위축, 공격성의 정서문제가 나타난다는 보고(신호경 외, 2011; 이영주, 박주현, 2014; 전상민, 2014)가 있다. 이는 휴대전화의존과 청소년의 정서문제는 관련성이 있지만 정서문제가 휴대전화의존에 원인 변인으로 작용하는지 결과변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라고 하겠다. 이렇게 청소년 휴대전화의존과 관련하여 학대나 방임의 양육태도와 우울·위축, 공격성의 정서문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상이한 것은 단일 시점의 자료를 이용한

단기연구와 사용한 통계적 분석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종단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우울과 위축 및 공격성, 그리고 부모의 학대와 방임 간의 관계를 여러 시점을 걸쳐 나타나는 인과적 방향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특히, 학대와 방임의 특징이 다르므로(홍미, 김호진, 2007) 학대와 방임을 세분하여 정서문제와 휴대전화의존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주요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1. 부모의 학대와 방임, 청소년의 정서문제와 휴대전화의존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인가? 2. 부모의 학대와 방임, 자녀의 정서문제와 휴대전화의존 간의 상보적 인과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추적조사 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 Youth Panel Survey: KCYPS) 중 중1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패널자료에서 사회정서발달 영역의 정서문제(우울, 사회적 위축, 공격성 등)와 가정환경 영역의 양육방식II(학대, 방임)의 변인이 2차년도부터 시작하여 4차년도까지 매년 조사가 이루어졌기에 종단연구를 위해 2차(2011), 3차(2012), 4차(2013)년도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II. 방 법

1. 연구참가자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 KCYPS)의 2,3,4차년도 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패널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의 발달환경과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10년 시작하였고, 표집대상은 2010년 조사시작 당시 중학생 1학년으로 표집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이다. 이 조사의 표본추출은 학교단위로 이루어졌으며 각 패널 집단별로 시도별, 도시규모별로 할

당된 표본학교들을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의해 선정하였다. 이후 선정된 학교들에서 다시 표본학급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학급에 속한 모든 학생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2010년 중학교 1학년 패널을 2011, 2012, 2013년도에 조사한 2, 3,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결측치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여학생 1128명(49.5%), 남학생 1152명(50.5%), 총 2280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2. 측정도구

1) 휴대전화 의존

청소년 휴대전화 의존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의 2차(2011), 3차(2012), 4차(2013)년도 조사에서 휴대전화 의존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휴대전화 의존도 문항은 이시형, 김학수와 나은영(2002)의 연구를 참고하여 한국청소년정책개발원에서 구성한 것으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보내게 된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의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를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4점으로 하는 Likert 척도이며 코딩변환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2차년도 Cronbach α .823, 3차년도 Cronbach α .821, 4차년도 .884로 나타났다.

2) 우울·위축, 공격성

청소년의 우울과 위축,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의 2차(2011), 3차(2012), 4차(2013)년도 정서문제 중 우울, 사회적 위축, 공격성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우울 문항은 ‘기운이 별로 없다’등의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위축 문항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격성 문항은 ‘작은 일에도 트집 잡을 때가 있다’ 등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매우 그렇다’를 1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4점으로 하는 Likert 척도이며 코딩변환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과 위축,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우울 척도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 α .909(2차), .903(3차), .889(4차)로 나타났으며, 위축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15(2차), .861(3차), .880(4차)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공격성 척도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 α .810(2차), .796(3차), .785(4차)로 나타났다.

3) 학대, 방임

부모의 학대와 방임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의 2차(2011), 3차(2012), 4차(2013)년도의 양육방식II에서 학대와 방임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패널 조사에서 사용된 학대와 방임 문항은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의 아동학대 문항을 참고로 하여 구성된 것이다. 학대 문항은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등의 4개 문항으로, 방임 문항은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등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대와 방임 문항 모두 ‘매우 그렇다’를 1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4점으로 하는 Likert 척도이다. 학대와 방임 문항도 코딩을 변환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와 방임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대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 α .738(2차), .818(3차), .850(4차)로 나타났으며, 방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770(2차), .739(3차), .718(4차)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과 우울, 위축, 공격성 그리고 부모의 학대와 방임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 cross-lagged model: ARCL)을 사용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종단자료를 이용해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핵심은 t시점의 값이 이전 시점인 t-1시점의 값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것이며, 자기회귀모형을 다변량 모형으로 확장시켜 두 변인

간의 상호지연효과(cross-lagged effect)를 추정할 수 있다(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시간에 따라 각 변수의 측정동일성과 경로동일성, 오차 공분산 동일성의 가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또한 측정 동일성의 가정이 충족되어야 경로동일성 가정을 검증할 수 있으며, 경로동일성의 가정이 검증되어야 오차 공분산 동일성 가정을 검증할 수 있다. 즉, 측정동일성 가정에서 경로동일성 가정, 그리고 오차 공분산 동일성의 가정 순으로 순차적으로 검증한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측정동일성은 각 시점에서 측정한 변수가 동일한 개념인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측정 동일성이 성립된다면 변수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응답자들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경로동일성은 시점 (t-1)의 잠재변수가 시점(t)의 잠재변수에 영향을 주는 효과와 시점(t)의 잠재변수가 시점 (t+1)의 잠재변수에 주는 효과가 동일한지를 검증하며, 같은 개념을 측정한 잠재변수 간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과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잠재변수들 간의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동일성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오차 공분산 동일성은 각 시점에서 오차 간의 공분산을 고정(constrained)하여 잠재변수가 가지는 관련성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우연히 발생한 것이지, 아니면 진정한 의미의 관련성인지를 검증한다(김주환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중2에서 고1까지의 기간 동안에 휴대전화의존과 우울, 위축, 공격성 및 부모의 학대, 방임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대한 잠재변수는 청소년 문제를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분류한 선행연구(신현숙, 이경성, 이해경, 신경수, 2004)를 바탕으로 하여 내재화 문제로 분류되는 우울과 위축을 하나의 잠재변수로, 외현화 문제로 분류되는 공격성을 또 다른 잠재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휴대전화의존과 정서, 부모의 양육태도 간의 인과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방임과 학대 변인도 별도의 잠재변수로 세분하여 총 6가지 잠재변수로 4변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으로 검증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는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차이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고려한다(김주환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적합도 지수중에서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적합도와 간명성을 고려할 수 있는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등의

모형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TLI와 CFI는 .90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되며, RMSEA는 .05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 .08이하일 때 괜찮은 적합도, .10이하일 때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본다(홍세희, 2000). 본 연구의 청소년 휴대전화 의존과 우울·위축, 공격성 그리고 부모의 학대, 방임간의 인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검증은 AMOS 21.0을 통해 이루어졌다.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의 변인인 휴대전화 의존 및 우울·위축, 공격성과 학대, 방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변인인 휴대전화 의존 및 우울·위축, 공격성과 학대, 방임 간의 상관관계와 평균(M)과 표준편차(SM)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각 변인들의 연간 변화치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휴대전화 의존이나 우울·위축, 공격성과 학대, 방임의 모든 변인이 공통되게 2차년도 보다 3차년도에서 미미하게 증가하였다가 4차년도에도 다시 근소하게 감소하였다. 측정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중2시기에는 우울과 위축·우울과 공격성, 그리고 공격성과 휴대전화 의존에서 상관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2시기와 중3시기, 중2시기와 고1시기에는 비슷한 패턴의 상관이 나타나면서 중2시기의 우울·위축과 중3시기의 우울·위축, 공격성 간에 상관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3시기에서는 학대, 우울·위축이 공격성과 상관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4차년도인 고1시기에는 우울과 위축·우울과 공격성, 공격성과 휴대전화의존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측정변인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2차년도(중2)						3차년도(중3)						4차년도(고1)					
		학대	방임	우울	위축	공격성	의존	학대	방임	우울	위축	공격성	의존	학대	방임	우울	위축	공격성	의존
2차 년도	학대	1																	
	방임	-.091**	1																
	우울	.257**	-.196**	1															
	위축	.079**	-.103**	.533**	1														
	공격성	.241**	-.130**	.473**	.297**	1													
3차 년도	의존	.179**	-.020	.265**	.102**	.306**	1												
	학대	.368**	-.164**	.143**	.038	.135**	.075**	1											
	방임	-.149**	.375**	-.210**	-.106**	-.119**	-.049*	-.135**	1										
	우울	.140**	-.159**	.492**	.276**	.291**	.187**	.269**	-.254**	1									
	위축	.071**	-.131**	.310**	.465**	.154**	.054*	.129**	-.133**	.557**	1								
4차 년도	공격성	.186**	-.108**	.308**	.142**	.423**	.227**	.308**	-.184**	.568**	.338**	1							
	의존	.107**	-.048*	.198**	.083**	.239**	.539**	.158**	-.081**	.265**	.102**	.318**	1						
	학대	.348**	-.110**	.117**	.024	.127**	.082**	.418**	-.154**	.152**	.068**	.180**	.095**	1					
	방임	-.114**	.324**	-.171**	-.093**	-.134**	-.024	-.160**	.394**	-.174**	-.090**	-.137**	-.069**	-.193**	1				
	우울	.078**	-.110**	.409**	.257**	.220**	.172**	.124**	-.193**	.491**	.280**	.302**	.236**	.220**	-.256**	1			
4차 년도	위축	.017	-.119**	.275**	.464**	.106**	.024	.059**	-.115**	.301**	.501**	.159**	.085**	.082**	-.131**	.502**	1		
	공격성	.158**	-.100**	.281**	.148**	.379**	.203**	.197**	-.146**	.339**	.182**	.472**	.252**	.255**	-.166**	.546**	.296**	1	
	의존	.085**	-.037	.147**	.065**	.200**	.420**	.124**	-.097**	.217**	.095**	.257**	.502**	.233**	-.126**	.325**	.139**	.316**	1
	평균	7.371	12.516	19.303	11.194	12.767	16.152	7.352	12.622	19.813	11.315	13.226	16.851	6.686	12.260	18.819	11.176	11.799	16.630
	표준편차	2.868	2.365	6.154	3.532	3.433	5.247	2.869	2.228	6.251	3.691	3.601	5.083	2.461	1.999	5.575	3.457	3.158	4.741
왜도	왜도	.980	-.495	.308	.098	.082	.251	.960	-.271	.221	-.029	.029	.105	1.106	.040	.168	-.063	.046	.172
	첨도	.559	.752	-.249	-.448	.076	-.472	.509	.394	-.333	-.537	-.066	-.318	1.182	.373	-.470	-.487	-.413	-.106

$p < 0.01$ **, $p < .05$ *

2.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검증

앞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학대와 방임은 청소년들의 정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의 학대와 방임을 구분하지 않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휴대전화의존의 원인을 보다 명료하게 밝혀 보고자 부모의 학대와 방임 변인을 각각 분리하여 검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서문제는 우울과 위축, 공격성을 잠재변수로 설정하여 휴대전화의존, 학대, 방임, 우울과 위축, 공격성 총 6가지 잠재변수를 이용하여 4변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검증하였다. 4변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검증은 다음과 같다. 검증1은 부모의 학대와 우울·위축과 휴대전화의존의 관계, 검증2는 학대와 공격성과 휴대전화의존의 관계, 검증3은 부모의 방임과 우울·위축과 휴대전화의존의 관계, 검증4는 방임과 공격성, 휴대전화의존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검증은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그리고 오차공분산 동일성 검증 순으로 검증1에서 검증4까지 모두 동일하게 16개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18개의 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형1은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본모형이다. 모형2에서 모형4는 각 잠재변수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모형으로써 모형2에서는 잠재변인 학대와 방임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a)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했다. 모형3은 모형2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우울과 위축, 공격성 각각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b)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4는 모형 3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휴대전화의존에 대한 요인 적재치(c)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5에서 모형7까지는 각 잠재변수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을 측정한 모형으로, 모형5는 모형4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학대와 방임 각각의 자기회귀계수(A)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며, 모형6은 모형5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우울과 위축, 공격성의 자기회귀계수(B)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7은 모형6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휴대전화의존의 자기회귀계수(C)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8에서 모형13까지는 잠재변수들 간의 교차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을 측정한 모형이다. 모형8에서는 모형7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학대와 방임에서 우울과 위축, 공격성으로의 교차회귀계수(D)에 동일성 제약을 가했으며, 모형9에서는 모형8에 추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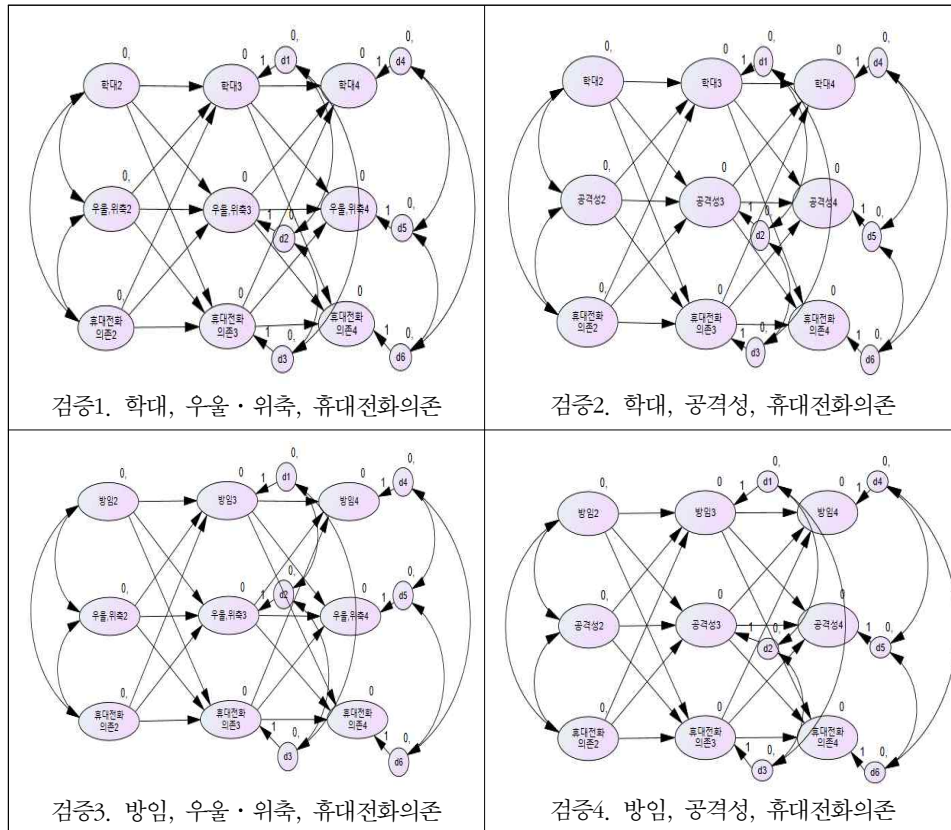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잠재변인 학대와 방임에서 휴대전화의존으로의 교차회귀계수(E)에 일정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10은 모형9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우울과 위축, 공격성에서 학대와 방임으로의 교차회귀계수(F)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며, 모형11은 모형10 추가하여 잠재변인 휴대전화의존에서 우울과 위축, 공격성으로의 교차회귀계수(G)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12는 모형11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우울과 위축, 공격성에서 방임이나 학대로의 교차회귀계수(H)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고, 모형13은 모형12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우울과 위축, 공격성에서 휴대전화의존으로의 교차회귀계수(I)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14에서 모형16은 오차 공분산 동일성을 검증한 모형으로서 모형14는 모형13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학대나 방임과 우울, 위축 그리고 공격성 간의 오차 공분산 사이(J)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15는 모형4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우울과 위축, 공격성과 휴대전화의존 간의 오차 공분산 사이(K)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며, 모형16은 모형15에 추가하여 잠재변인 학대나 방임과 휴대전화의존 간의 오차 공분산 사이(L)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위의 각각의 16개 모형 중에서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모형1과 모형2의 비교, 모형2와 모형3의 비교 순으로 해서 모형1에서부터 모형16까지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χ^2 차이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기각되기도 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χ^2 차이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은 χ^2 의 p-값이 .05보다 작은 ($p < .05$) 것으로서 모형이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 χ^2 차이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은 χ^2 의 p-값이 .05보다 큰 ($p > .05$) 것을 말하며, 이는 표본의 데이터의 공분산행렬과 모델로부터 추정된 공분산 행렬 간에 차이가 없으므로 모형이 적합한 것을 의미한다(우종필, 2012). χ^2 값은 표본의 크기에 따라 적합한 모델이라도 적합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고, 적합하지 않은 모델도 적합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적게 받는 RMSEA, TLI, CFI의 지수로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우종필, 2012; 홍세희, 2000).

본 연구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의 학대는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방임은 우울·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학대와 방임 그리고 자녀의 휴대전화의존 쌍방 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울·위축, 공격성은 휴대전화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대와 우울·위축(검증1), 방임과 공격성(검증4) 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으로 검증2와 검증3을 중심으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검증2에서 학대와 공격성, 휴대전화의존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잠재변인 각각의 측정동일성을 먼저 검증하였다. 측정동일성에 대한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시점별로 잠재변인 학대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2와 모형1의 χ^2 차이값은 6.362($df=2$, $p < .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TLI(.955), CFI(.964), RMSEA(.034)를 살펴본 결과 이전 모형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다. 이는 모형1과 모형2가 동일함을 의미한다. 잠재변인 공격성에 제약을 가한 모형3과 모형2를

비교했을 때 χ^2 의 차이값은 3.191($df=1$)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잠재변인 휴대전화에 제약을 가한 모형4와 모형3을 비교했을 때 χ^2 차이값은 0.02($df=1$)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학대, 공격성, 휴대전화의존의 측정동일성 가정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가정에 따라 학대의 자기회귀계수에 시간에 따라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5와 측정동일성 모형4간의 χ^2 차이값은 62.936($df=1$,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기각되었다. 하지만 TLI(.954), CFI(.964), RMSEA(.033)의 값이 이전 모형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다. 공격성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6과 모형5 간의 χ^2 차이값은 52.341($df=1$,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TLI(.954), CFI(.964), RMSEA(.033) 값을 살펴본 결과 이전 모형 보다 나빠지지 않았다. 휴대전화의존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7과 모형6 간의 χ^2 차이값은 60.673($df=1$, $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LI(.954), CFI(.964), RMSEA(.033) 값이 이전의 모형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다. 따라서 학대, 공격성, 휴대전화의존의 자기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학대와 공격성, 휴대전화의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가정에 따라 학대에서 공격성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8과 모형7간의 χ^2 차이값은 4.642($df=1$, $p<.05$)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LI(.954), CFI(.964), RMSEA(.033)의 값을 살펴본 결과 이전 모형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다. 학대에서 휴대전화의존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9와 모형8간의 χ^2 차이값은 1.19($df=1$)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격성에서 학대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10과 모형9간의 χ^2 차이값은 6.126($df=1$,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TLI(.955), CFI(.964), RMSEA(.033)의 값이 이전보다 나빠지지 않았다. 공격성에서 휴대전화의존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11과 모형10간의 χ^2 차이값은 17.201($df=1$, $p<.001$)로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LI(.955), CFI(.964), RMSEA(.033) 값은 이전보다 나빠지지 않았다. 휴대전화의존에서 학대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12와 모형11간의 χ^2 차이값은 0.002($df=1$)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의존에서 공격성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13과 모형12간의

χ^2 차이값은 16.5731($df=1$, $p<.001$)로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TLI (.953), CFI(.964), RMSEA(.033) 값을 살펴본 결과 TLI 값이 -.001 차이($\Delta TLI=-.001$)를 보였지만 0.1를 초과하지 않았고, CFI와 RMSEA 값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로써 학대와 공격성, 휴대전화의존의 잠재변인은 시간에 따른 교차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모형14에서 모형16까지의 잠재변수 간의 오차공분산 동일성에 대해 검증하였다. 학대와 공격성 간의 오차공분산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14와 경로동일성 모형13간의 χ^2 차이값은 5.546($df=1$, $p<.05$)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TLI(.954), CFI(.964), RMSEA(.033) 값을 살펴본 결과 이전 모형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다. 공격성과 휴대전화의존 간의 오차공분산 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모형15와 모형14간의 χ^2 차이값은 14.428($df=1$,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TLI(.954), CFI(.964), RMSEA(.033) 값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대와 휴대전화의존 간의 오차공분산 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모형16과 모형15간의 χ^2 차이값은 21.216($df=1$, $p<.001$)로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TLI(.954), CFI(.964), RMSEA(.033) 값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이전 모형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다. 즉 모형 적합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분석과 같이 모형1에서 모형16까지 모형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모형16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표 2

학대, 공격성, 휴대전화의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합도 비교 및 동형검증

모형	χ^2	df	TLI	CFI	RMSEA	$\Delta\chi^2$	ΔTLI	ΔCFI	$\Delta RMSEA$
모형1	394.294	108	.955	.964	.034				
모형2	400.656	110	.955	.964	.034	6.362(2) [*]	.000	.000	.000
모형3	403.847	111	.955	.964	.033	3.191(1)	.000	.000	-.001
모형4	403.867	112	.954	.964	.033	0.02(1)	-.000	.000	.000
모형5	466.803	113	.954	.963	.033	62.936(1) ^{***}	.000	-.000	.000
모형6	519.144	114	.954	.964	.033	52.341(1) ^{***}	.000	.000	.000
모형7	579.817	115	.954	.964	.033	60.673(1) ^{***}	.000	.000	.000
모형8	584.459	116	.954	.964	.033	4.642(1) [*]	.000	.000	.000
모형9	585.649	117	.955	.965	.033	1.19(1)	.001	.001	.000
모형10	591.775	118	.955	.964	.033	6.126(1) [*]	.000	-.001	.000

모형	χ^2	df	TLI	CFI	RMSEA	$\Delta\chi^2$	ΔTLI	ΔCFI	$\Delta RMSEA$
모형11	608.976	119	.955	.964	.033	17,201(1)***	.000	.000	.000
모형12	608.996	120	.954	.964	.033	0.002(1)	-.001	.000	.000
모형13	625.569	121	.953	.964	.033	16,573(1)***	-.001	.000	.000
모형14	631.115	122	.954	.964	.033	5,546(1)*	.001	.000	.000
모형15	645.543	123	.954	.964	.033	14,428(1)***	.000	.000	.000
모형16	666.759	124	.954	.964	.033	21,216(1)***	.000	.000	.000

*** $p<.001$, ** $p<.01$, * $p<.05$

주. 모형 1은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본모형, 모형 2-4는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를 각 시점 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5-7는 잠재변인 학대, 공격성, 휴대전화의존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8-13은 잠재변인 학대, 공격성, 휴대전화의존에 대한 교차회귀계수에 대해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4-16은 잠재변인들의 오차 공분산 사이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검증3은 방임과 우울 · 위축, 휴대전화의존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방임과 우울 · 위축, 휴대전화의존의 잠재변인 각각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각 시점별로 잠재변인 방임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2와 모형1의 χ^2 차이값은 24.594($df=2$,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LI(.924), CFI(.948), RMSEA(.051) 값을 살펴본 결과 이전 모형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다. 이는 모형1과 모형2가 동일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잠재변인 우울 · 위축에 제약을 가한 모형3과 모형2를 비교했을 때 χ^2 의 차이값은 25.347($df=2$, $p<.001$)로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 TLI(.925), CFI(.948), RMSEA(.051)를 살펴본 결과 TLI 값에서 .001의 차이가($\Delta TLI=.001$) 나타났다. 그러나 .01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우울 · 위축 잠재변인의 측정동일성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잠재변인 휴대전화의존에 제약을 가한 모형4와 모형3을 비교했을 때 χ^2 차이값은 0.541($df=2$)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처럼 각 잠재변인의 측정동일성에 대한 검증 결과 시간에 따른 방임, 우울 · 위축 그리고 휴대전화의존의 잠재변인은 측정동일성 가정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가정에 따라 방임의 자기회귀계수에 시간에 따라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5와 측정동일성 모형4간의 χ^2 차이값은 164.92($df=1$,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기각되었다. 하지만 TLI(.942), CFI(.948), RMSEA(.051)의 값이 이전 모형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다. 우울·위축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6과 모형5 간의 χ^2 차이값은 39.771($df=1$,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TLI(.942), CFI(.948), RMSEA(.051) 값을 살펴본 결과 이전 모형보다 나빠지지 않았다. 휴대전화의존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7과 모형6 간의 χ^2 차이값은 2.246($df=1$)로 유의도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방임, 우울·위축, 휴대전화의존의 자기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방임과 우울·위축, 휴대전화의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가정에 따라 방임에서 우울·위축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8과 모형7간의 χ^2 차이값은 72.015($df=1$, $p<.001$)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LI(.925), CFI(.947), RMSEA(.053)의 값을 살펴본 결과 이전 모형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다. 방임에서 휴대전화의존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9와 모형8간의 χ^2 차이값은 0.012($df=1$)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울·위축에서 방임으로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10과 모형9간의 χ^2 차이값은 60.456($df=1$,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TLI(.925), CFI(.948), RMSEA(.054)의 값이 이전보다 나빠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우울·위축에서 휴대전화의존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11과 모형10간의 χ^2 차이값은 11.428($df=1$, $p<.001$)로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LI(.925), CFI(.948), RMSEA(.054) 값은 이전보다 나빠지지 않았다. 휴대전화의존에서 방임으로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12와 모형11간의 χ^2 차이값은 32.574($df=1$,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TLI(.925), CFI(.947), RMSEA(.053) 값을 살펴본 결과 $\Delta CFI=.001$, $\Delta RMSEA=.001$ 로 차이값이 .01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시간에 따른 교차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휴대전화의존에서 우울·위축으로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13과 모형12간의 χ^2 차이값은 2.371($df=1$)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방임과 우울·위축, 휴대전화의존의 잠재변인은 시간에 따른 교차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이 성립되었다.

모형14에서 모형16까지의 잠재변수 간의 오차공분산 동일성에 대해 검증하였다. 방임과 우울 · 위축 간의 오차공분산에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14와 경로동일성 모형13간의 χ^2 차이값은 96.32($df=1$,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TLI(.926), CFI(.947), RMSEA(.053)값을 살펴본 결과 이전 모형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다. 우울 · 위축과 휴대전화의존 간의 오차공분산 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모형15와 모형14간의 χ^2 차이값은 30.591($df=1$,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나 TLI(.926), CFI(.946), RMSEA(.053) 값을 살펴본 결과 CFI값이 이전 모형의 CFI 값보다 -.001로 차이를 보였다($\Delta CFI= -.001$). 방임과 휴대전화의존 간의 오차공분산 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모형16과 모형15간의 χ^2 차이값은 19.618($df=1$, $p<.001$)로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TLI(.925), CFI(.945), RMSEA(.053) 값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TLI와 CFI 값이 각각 -.001의 차이를 보였다($\Delta TLI=-.001$, $\Delta CFI=-.001$). 그러나 차이값이 -.01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시간에 따른 오차공분산 사이에 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방임과 우울 · 위축, 휴대전화의존 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에서도 모형16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표 3

방임, 우울 · 위축, 휴대전화의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Delta\chi^2$	ΔTLI	ΔCFI	$\Delta RMSEA$
모형1	461,769	108	.924	.948	.051				
모형2	486,363	110	.924	.948	.051	24,594(2)***	.000	.000	.000
모형3	511,701	112	.925	.948	.051	25,347(2)***	.001	.000	.000
모형4	512,242	114	.924	.948	.051	0,541(2)	-.001	.000	.000
모형5	677,192	115	.924	.948	.051	164,921(1)***	.000	.000	.000
모형6	716,963	116	.924	.948	.051	39,771(1)***	.000	.000	.000
모형7	719,209	117	.924	.948	.053	2,246(1)	.000	.000	.002
모형8	791,224	118	.925	.947	.053	72,015(1)***	.001	-.001	.000
모형9	791,236	119	.925	.948	.053	0,012(1)	.000	.001	.000
모형10	851,692	120	.925	.948	.054	60,456(1)***	.000	.000	.001
모형11	863,120	121	.925	.948	.054	11,428(1)***	.000	.000	.000
모형12	895,694	122	.926	.947	.053	32,574(1)***	.001	-.001	-.001
모형13	898,065	123	.926	.947	.053	2,371(1)	.000	.000	.000

모형	χ^2	df	TLI	CFI	RMSEA	$\Delta\chi^2$	Δ TLI	Δ CFI	Δ RMSEA
모형14	993.385	124	.926	.947	.053	96.32(1)***	.000	.000	.000
모형15	1023.976	125	.926	.946	.053	30.591(1)***	.000	-.001	.000
모형16	1043.594	126	.925	.945	.053	19.618(1)***	-.001	-.001	.000

*** $p < .001$, ** $p < .01$, * $p < .05$

주. 모형 1은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본모형, 모형 2-4은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를 각 시점 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5-7는 잠재변인 방임, 우울·위축, 휴대전화의존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8-13은 잠재변인 방임, 우울·위축, 휴대전화의존에 대한 교차회귀계수에 대해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14-16은 잠재변인들의 오차 공분산 사이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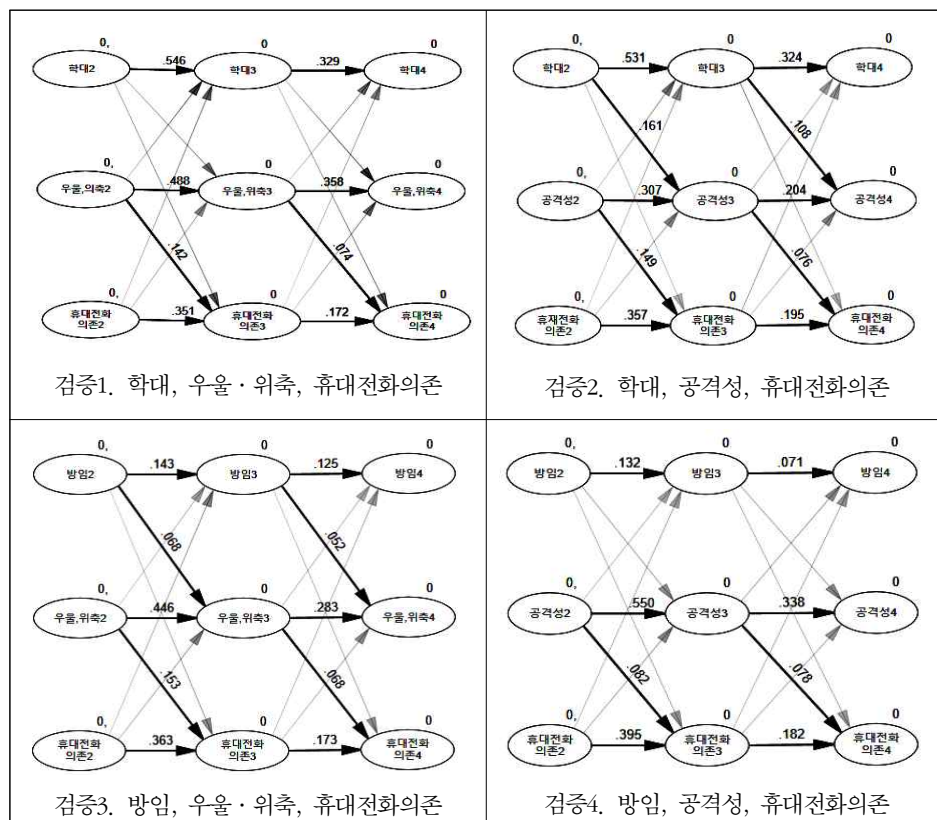


그림 2. 부모의 학대, 방임과 우울·위축, 공격성과 휴대전화의존 간의 최종모형 추정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휴대전화 의존과 부모의 학대와 방임, 그리고 청소년의 우울과 위축, 공격성 간의 종단적 상호 관련성을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사용하여 검증하는 것이었다. 첫째, 부모의 방임과 우울 · 위축과 휴대전화의존의 관계에서 중2에서 고1까지 세 시점에 걸쳐 방임, 우울과 위축, 휴대전화의존의 자기회귀 계수를 측정한 결과, 이전 시점의 학대가 이후 시점의 학대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eta=.546$, $\beta=.329$, $p<.001$), 이전 시점의 우울 · 위축이 이후 시점의 우울 · 위축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488$, $\beta=.358$, $p<.001$). 또한 이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도 이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61$, $\beta=.172$, $p<.001$). 다음으로 교차지연효과 검증을 위해 학대와 우울 · 위축, 휴대전화의존 쌍방 간의 관계를 알아 본 결과, 학대는 우울과 위축, 휴대전화의존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중2시점의 우울 · 위축은 중3시점의 휴대전화의존($\beta=.142$, $p<.001$)에 중3시점의 우울 · 위축은 고1시점의 휴대전화의존($\beta=.074$,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학대와 공격성, 휴대전화의존 간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대, 공격성, 휴대전화의존 각각은 중2시점에서 고1시점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시점의 학대가 이후 시점의 학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307$, $\beta=.204$, $p<.001$), 이전 시점의 공격성이 이후 시점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307$, $\beta=.204$, $p<.001$). 그리고 이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이 이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367$, $\beta=.195$, $p<.001$). 학대와 공격성, 휴대전화의존 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알아 본 결과, 중2시점의 학대는 중3시점의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161$, $p<.001$), 중3시점의 학대는 고1시점의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08$, $p<.001$). 중2시점의 공격성은 중3 시점의 휴대전화 의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149$, $p<.001$), 중3시점의 공격성은 고1시점의 휴대전화 의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76$, $p<.001$). 그러나 학대가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방임과 우울 · 위축, 휴대전화의존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임, 우울 · 위축, 휴대전화의존의 자기회귀 계수를 측정한 결과, 이전 시점의 방임이

이후 시점의 방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143$, $\beta=.125$, $p<.001$). 우울·위축 또한 이전 시점의 우울·위축이 이후 시점의 우울·위축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446$, $\beta=.283$, $p<.001$), 이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이 이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363$, $\beta=.173$, $p<.001$). 방임과 우울·위축, 휴대전화의존 쌍방 간의 관계를 알아 본 결과, 중2시점의 방임은 중3시점의 우울·위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068$, $p<.001$), 중3시점의 방임은 고1시점의 우울·위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52$, $p<.001$). 그리고 중2시점의 우울·위축은 중3시점의 휴대전화의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153$, $p<.001$), 중3시점의 우울·위축은 고1시점의 휴대전화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68$, $p<.001$). 그러나 방임이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방임과 공격성, 휴대전화의존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방임, 공격성, 휴대전화의존은 중2시점에서 고1시점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시점의 방임이 이후 시점의 방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132$, $\beta=.071$, $p<.001$), 이전 시점의 공격성이 이후 시점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beta=.550$, $\beta=.338$, $p<.001$). 이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이 이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395$, $\beta=.182$, $p<.001$). 방임과 공격성, 휴대전화의존에서 쌍방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방임이 공격성이나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2시점의 공격성은 중3시점의 휴대전화의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082$, $p<.001$), 중3시점의 공격성은 고1시점의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78$, $p<.001$).

이상의 결과에서 부모의 학대와 방임, 청소년의 우울·위축과 공격성, 그리고 휴대전화의존은 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대, 방임, 우울·위축, 공격성, 휴대전화의존과 같은 사건들이 시간이 흐름에도 변화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학대와 방임은 자녀의 정서에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Debbie와 Craig(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된 결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 중 학대는 자녀의 공격성에, 방임은 우울·

위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에서 청소년의 우울·위축, 공격성이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이용하여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시점까지 부모의 학대와 방임, 청소년 우울과 위축, 공격성 그리고 휴대전화의존 간 방향성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들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안정성을 살펴보았다. 부모의 학대, 방임, 청소년의 우울·위축, 공격성 그리고 휴대전화의존이 회기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알아본 결과, 중2에서 고1까지 세 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학대, 방임은 이후 시점의 학대, 방임에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시간에 따라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위축, 공격성과 휴대전화의존 역시 이전 시점이 이후 시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 방임, 우울·위축, 공격성, 휴대전화의존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홍미와 김효진(2007)의 아동학대 및 방임실태의 보고에 따르면 학대·방임의 피해연령은 초등학교 저학년인 7~9세 아동이 23.6%, 고학년인 10~12세 아동이 26.6%, 13~18세 청소년의 경우 28.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방임에 대한 적절한 중재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정도와 빈도는 심화될 수 있다(김혜금, 2015). 본 연구에서도 학대·방임이 연속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방임에 대한 관리와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아동·청소년들은 수 년 동안 학대와 방임에 노출 되며 뿐만 아니라 정서·행동문제와 같은 2차, 3차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대와 방임이 다른 특성을 가진다(홍미, 김효진, 2007)는 점에서 학대와 방임을 세분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학대는 자녀의 공격성에, 방임은 우울·위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ebbie와 Craig(198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Debbie와 Craig(1984)은 학대를 경험한 아동, 방임을 경험한 아동, 학대·방임 경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 측정, 행동

관찰, 부모와 교사의 보고를 통해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상호작용, 친사회적 행동, 공격성 등에 관해 연구하였다. Debbie와 Craig(1984)의 연구 결과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공격성이 높고, 방임을 경험한 아동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은 공격성을 학습하게 되며, 방임에 노출된 아이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회피하는 것을 학습하기 때문일 것이다(Debbie & Craig, 1984). 이외에도 Kinard(1980)의 연구 결과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집단에서 동료에 대한 공격행동과 과잉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황은수(2006)의 연구에서 방임이 아동의 우울과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신체적 학대는 우울과 불안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혁(2009)의 연구에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각각이 공격성과 우울·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대가 방임보다 더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방임이 자녀의 정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모의 학대·방임과 자녀의 휴대전화의존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대경험이 휴대전화의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김선아, 2015; 김진숙 외, 2014; 유현주, 2014)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학대·방임적 양육태도로 인해 휴대전화의존이 높아진다는 보고, 학대·방임이 휴대전화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우수정, 2013; 이어리, 이강이, 2012). 부모의 학대·방임과 청소년 휴대전화의존 간의 상이한 결과는 어떤 분석방법으로 효과를 검증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양상으로 추측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위축과 공격성은 이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문제가 휴대전화의존을 야기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다수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유현주(2014)는 우울, 사회적 위축, 공격성, 주의집중은 휴대전화의존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 김혜수 외(2007), 강필승(2014)도 우울, 공격성과 같은 정서문제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휴대전화의존이 심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또는 우울과 공격성을 포함한 정서문제를 가지고 있을수록 휴대전화의존이 높아진다고 보고가 있으며(백승희 외, 2014; 장성화, 조정덕, 2010). 또한 사회적 위축이 휴대전화의존 현상을 강화시킨다는 보고가 있다(박지영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학대·방임 경험이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한 것으로 보아, 학대와 방임 경험은 우울·위축, 공격성과 같은 부정정서를 일으키고, 이는 다시 자녀의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느끼는 우울감 경험에 관한보고(청소년백서, 2015)에 따르면 남학생은 전체 평균 19.7%가 여학생은 전체 평균 27.8%가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우울감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휴대전화의존 및 중독, 기타 적응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울과 상호적 관계에 있는 사회적 위축 또한 또래관계에서 회피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며(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정서 발달의 부적응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격성(우유라, 노충래, 2014)은 성인기까지 지속되거나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Tremblay, 2000).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우울·위축, 공격성과 같은 정서문제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학대와 방임을 세분하여 학대와 공격성, 학대와 우울·위축, 방임과 공격성, 방임과 우울·위축 그리고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관계를 종단연구를 통해 검증한 것에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최초의 사회적관계이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의 학대와 방임으로 자녀는 우울해지고, 사회적으로 위축되며 공격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양한 곳에서 부적응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에서 또래집단을 형성하고 또래집단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에 속하기 위해, 또래와 소통을 위해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김영순, 2004; 이시형 등, 2002; Fine, 1987).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 교육과 상담을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과 지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더불어 휴대전화의존이나 중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휴대전화를 스스로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조절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청소년들이 휴대전화가 아닌 운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및 대안활동을 접할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대, 방임, 우울·위축,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각각

변인들의 특성을 살펴보는데 있어 문항 내용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학대와 방임을 측정하는 문항은 각각 4문항으로 그 속성을 모두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축과 공격성 문항 또한 각 5문항, 6문항으로 위축, 공격성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는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우울 측정 문항 역시 우울의 특징을 모두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본 연구에 사용된 우울 측정 문항은 우울장애로 진단 내릴 수 있는 기준(DSM-V: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중 우울한 기분과 죽음, 활력상실, 무가치감과 죄책감 등에 대해서는 측정하고 있지만, 운동 지연이나 초조,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식욕 및 체중의 변화에 대해서는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각 변인의 특성이 고루 반영된 척도와 각 변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하여 인과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자료 중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시점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부모의 학대·방임, 우울·위축, 공격성과 휴대전화 의존의 관계를 검증한 것이다. 그러나 학대·방임은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영유아기 때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 수 임으로(홍미, 김효진, 2007) 학대와 방임이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그 이전 시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변화 과정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추적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학대는 정서, 신체, 성 학대 등으로 구분되고, 방임 역시 정서, 신체, 교육적 방임 등으로 구분되는 만큼 학대·방임 유형에 따라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학대·방임이 휴대전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정서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김선아, 2015; 김진숙 외, 2014; 유현주, 2014)는 연구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우수정, 2013; 이어리, 이강이, 2012)는 상반된 연구가 있는 만큼 부모의 학대·방임과 휴대전화의존 간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강필승 (2014). **중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구현영 (2012).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의 영향 요인.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5(2), 60-70.
- 김광혁 (2009).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4(2), 27-46.
- 김나연 (2013).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수로 하여**.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보연 (2012). **고등학생의 인터넷 게임 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과 수면부족 및 스트레스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아 (2015). 부모학대, 부적포대관계, 휴대폰의존과 중학교 청소년우울과의 관계성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43, 31-56.
- 김소영, 홍세희 (2014). 중학생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 추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5(3), 101-123.
- 김 숙 (2014).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이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휴대전화 의존 및 기능적 활용의 영향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지혜 (2012). 부모요인, 친구요인, 개인요인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용도를 매개로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4(3), 97-120.
- 김진숙, 문현주, 황승일 (2014).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27, 1-24.
- 김재철, 이정숙, 성경주 (2012). 부모학대가 청소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교육적 참여의 조절효과. **교육연구**, 20, 119-139.
- 김영민, 임영식 (2012). 민주적 양육방식, 자아탄력성 및 휴대전화의존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2), 273-299.
- 김영순 (2004). **고등학생의 휴대폰 중독과 심리성숙도와의 관계**.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금 (2015). 성별과 학년 시기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아동의 학교

- 생활적응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1), 355-371.
- 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휴대전화 중독 경향성 청소년의 심리, 사회환경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2), 383-393.
- 권재환, 이은희 (2005). 판별분석을 이용한 게임중독 청소년들의 심리적 사회환경적 특성 예측.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1), 95-112.
- 미래창조과학부 (2015). **2015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 박나래, 정익중 (2012). 방임, 과보호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7, 139-164.
- 박영진, 장성화 (2009).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 수준 연구: 자기통제력 및 정신건강의 관계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논문집**, 27, 161-178.
- 박지영, 김귀애, 홍창희 (2012).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이용 동기, 또래관계 및 정서적 요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1), 151-169.
- 박은혁, 이웅택 (2015).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구조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6(1), 171-193.
- 백승희, 전현정, 정혜원 (201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종단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5(4), 167-188.
- 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정현옥, 이소희, 김세주 (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0(4), 605-615.
- 송은주 (2006). 고등학생의 휴대폰 사용실태와 정신건강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5(3), 325-333.
- 신현숙, 이경성, 이해경, 신경수 (2004). 비행 청소년의 생활적응문제에서 우울/불안 및 공격성의 합병효과와 성차. **한국상담심리학회지**, 16(3), 491-510.
- 신호경, 이민석, 김홍국 (2011). 모바일 사용행동에 대한 실증연구: 스마트폰 사용 중독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18(3), 50-68.
- 양심영 (2002). **고등학교 청소년의 휴대폰중독에 관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양심영, 박영선 (2005).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성향의 예측모형. **대한가정학회지**, 43(4), 1-16.
- 여성가족부 (2015). **2015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우유라, 노충래 (2014).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2), 203-227.

- 우수정 (2013).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51(6), 583-590
- 유정아, 정익중 (2014). 방임이 초등저학년 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방임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를까?. **한국아동복지**, 47, 157-183.
- 윤선자 (2004). **청소년 휴대폰 이용 실태에 관한연구**.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어리, 이강이 (2012). 부모요인, 친구요인, 심리적 요인이 초등학생의 중독적인 휴대전화 사용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2), 27-39
- 이연미, 이선정, 신호식 (2009).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환경 변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1(3), 29-43.
- 이영주, 박주현 (2014). 이용동기와 자기통제력 및 사회적 위축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2(8), 459-465
- 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달-맥락주의적 관점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1(8), 317-346.
- 이정숙, 명신영 (2007). 휴대폰 중독 정도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과 대인관계 성향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2(1), 1-25.
- 이종석, 정득, 김인설, 황현석 (2014).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 부모학대경험 여부의 조절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5), 2713-2723
- 이춘숙 (2006). **청소년의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과 자아존중감과 우울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형진, 황동진 (2016).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3, 5-31
- 유현주 (2014). 초기 청소년기의 학대경험, 정서문제, 휴대전화의존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2), 21-44
- 유평수 (2010). 중학생의 학교성적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양식과 휴대폰 중독과의 관계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 33-51
- 장화정 (2004). 아동학대와 피해아동의 특성. **아동과 권리**, 8(4), 777-892.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 영향: 자존감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9(5), 161-187.
- 장성화, 조경덕 (2010). 청소년의 우울, 대인불안, 학교적응이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11), 285-293.
- 전상민 (201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 및 중독적 사용과 우울의 종단적 관계. **대한가정학회**, 52(3), 301-312.
- 전해숙 (2008). 아동학대 및 아동의 심리사회적 자원이 아동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0, 55-77.
- 조민자 (2012).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 및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0(1), 15-25.
- 조운주 (2013).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과 학습행동 통제 간의 관계에서 부모감독의 조절효과. **대한가정학회**, 15(2), 253-261.
- 차미숙 (2006). **외로움이 청소년의 휴대폰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재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홍미, 김효진 (2007). 아동학대 및 방임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28, 47-59.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 **교육심리연구**, 21(1), 129-143.
- 황은수 (2006). **아동의 학대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인식정서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Debbie, H. P., & Craig, T. T. (1984). A multimodal assessment of behavioral and cognitive in abused and neglected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55, 794-802.
- Fine, G. A. (1987). *With the boys: Little league baseball and preadolescent cul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 J., Chin, B., Park, D., Ryu, S., & Yu. (2008). Characteristics of excessive cellular phone use in Korean adolescents. *Cyberpsychology & Behavior*, 11(6), 783-784.

- Kinard, E. M. (1980). Emotional development in physically abuse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0, 686-695.
- Kurdek, L. A., & Krile, D. (1982). A developmental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peer acceptance and both interpersonal understanding and perceived social self-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3, 1485-1591.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
-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24(2), 129-141.
- Yang, Y., Yen, J., Ko, C., Cheng, C., & Yen, C. (2010). The association between problematic cellular phone use and risky behaviors and low self-esteem among Taiwanese adolescents. *Public Health*, 10, 1-8.
- Young, K., & Rogers, R.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1), 25-288.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abuse, neglect, emotional problems and mobile phone usage: A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pproach to a longitudinal study

Shin, Kyungmee* · Hwang, Soontae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ongitudinally the complementary causality between adolescent experience of abuse or neglect and emotional problems, and mobile phone dependency, using a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s the characteristics of abuse and neglect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we have chosen to separately categorize them. The emotional problems a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depression, withdrawal, and aggres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first, in the case of adolescents who have experienced abuse or neglect by parents, depression, withdrawal and aggression, mobile phone dependence was revealed to be stable over time. Second, abuse and neglect by parents affect the child's emotional problems differently, which means that abuse by pare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hild in terms of aggression, while neglect by pare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child in terms of depression or withdrawal. Third, the fact that the adolescent suffers from depression, withdrawal or aggress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mobile phone dependency, while the effect of abuse or neglect by parents on mobile phone dependenc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mobile phone dependency and emotional problems and negativ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were clearly identified.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hstpsy@chungbuk.ac.kr

Key Words: mobile phone dependence, abuse, neglect, depression,
withdrawn, aggression

투고일: 2016. 8. 19, 심사일: 2016. 11. 1, 심사완료일: 2016. 11. 10